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정교 주일

사순절 제1주일 / 정교 주일

성 타라시오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제5조 / 조과복음 5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정교 주일 찬양송 / 223, B 275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사도경: 히브리 11, 24-26, 32-40 /

223, 봉독서 445

· 복음경: 요한 1, 43-52 / 137, B 93

· 성모송 / 62, A 171

· 정교 주일 성화 행렬 / 224, B 277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축복과 용서가 온 교회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느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순절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금욕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필요한 단 한 가지” (루가 10:42)를 향해 돌아서게 해주셨습니다.

금욕을 비웃고 적대시하는 세상에서, 현대 세계에 만연한 신성한 생명에 대한 경시에 맞서서, 또한 개인주의적 행복을 최고의 것을 삼는 문화의 지배에 맞서서, 정교회는 올해도 영적 투쟁과 ‘거룩한 절제’의 ‘사십 일 기간’, 거룩하고 위대한 사순절을 지켜나갑니다. 사순절은 성 대주교와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를 맞이하기 위해 신자들 스스로를 준비시키

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대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성삼위 하느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경륜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더욱 분명히 말하면, 그것은 교회의 영적 삶의 종말론적 기준, 방향 그리고 도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바리사이와 사람의 교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의 돌 같은 마음, 마지막 심판 이야기에 언급되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자, 우리와 똑같은 이웃에 대한 방치와 무관심, 이

☞ 2면으로 계속

☞ 1면에서 계속

모든 것이 만들어 낸 출구가 없는 비극적 곤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의 참회와 겸손, 아버지 집에 돌아와 그 은총에 자신을 맡긴 탕자의 용기와 결단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로웠던 사람들,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의 기도의 삶, 시나이 산의 요한 클리막스 성인과 이집트의 마리아 성녀의 금욕적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이콘들과 고귀한 십자가에 대한 공경을 통해 더욱 굳세어져, 생명을 주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 삶의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특징은 특별히 이 복된 사순절기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혼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들의 총합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들의 친교이다. 인격적 존재에게 ‘존재’는 언제나 ‘더불어 존재’입니다. 금욕은 결코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교회의 사건입니다. 정교 신자에게 그것은 교회의 신비와 성사들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기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성만찬 예배를 관통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피조세계를 사용하는 것이며, 세상의 변모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의 자유, 하나의 덕, 하나의 선, 교회의 규범에 대한 하나의 순종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교회가 명하는 것에 따라 금식합니다. 우리의 금욕적 노력은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다른 여러 지체들과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전개됩니다. 그것은 또한 “사랑 안에서 진리”^(에페소 4:15)를 고백하는 삶의 공동체인 교회의 여러 사건과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교회의 영성은 신성한 감사의 성찬 예배에서 절정을 이루는 교회의 삶에 참여하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교 신앙은 교회 안에서 양육되고, 언제나 교회적인 차원을 가지는 신앙입니다.

대사순절의 경기장은 종교적인 심성을 드높이는 기간도, 피상적인 감정에 몰두하는 기간

도 아닙니다. 정교회가 말하는 영성은 물질과 몸에 대한 이원론적인 멸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그런 반쪽짜리 정신과 영혼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성은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영,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전체가 친교의 영이신 성령으로 젖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성은 우리의 삶을 교회화하는 것, 성령으로부터 영감 받고 인도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성령의 담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협력하는 것, 다시 말해 교회의 성사적 삶에 참여하고 하느님 안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주님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열매가 없는 영성은 결코 참된 영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영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의 가까운 이웃 그리고 떨어진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는 온 피조물을 사랑합니다. 이 희생적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1 고린토 13:8) 그것은 감사의 성찬예배와 같은 행위이고, 마지막 때의 생명과 진리를 이 지상에서 성취하는 것이며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교 신앙은 마르지 않는 역동성의 원천, 영적 투쟁 능력의 원천, 친구로서 하느님과 인간을 대하는 행위의 원천, 세상에서 선을 풍성하게 일구는 원천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은 하나의 견고한 생명에 대한 경험의 요체입니다. 교회의 거룩하고 영적인 친교 안에서 행해지는 금욕과 금식과 이웃 사랑은 종교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새겨진 신앙이 메마른 내적 추구와 개인적 완성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줍니다.

하느님의 성령은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대사순절의 거룩한 날들 동안,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고”^(로마 12:12), “겸손 안에서 살고 자비를 행하고”^(아파스 피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필로칼리아의 정신과 연민의 정으로 살며,

☞ 3면으로 계속



평화를 위한 투쟁(1)

트리폰 수도원장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는 시대에 평화는 연금술사가 쇠를 금으로 바꾸겠다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보인다.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은 나라와 정치 집단들, 종교들, 이웃들 사이에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평화로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애쓰고 있다. 그러나 평화가 세계의 한 곳에서 이루어질 때, 다른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언제나 우위에 있고, 반면에 평화는 평화주의자와 시인의 한낱 꿈일 뿐이다.

1960년대에 사람들이 기대하던 많은 평화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대중적인 철학자들과 히피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시대, 곧 물병좌(座)의 시대[1960년대에 시작해서 2000년간 지속된다는 새로운 자유의 시대. 점성술에서 자유, 평화, 우애의 시대로 믿어졌다.]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젊은이들은 이때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여기던 삶의 방식을 택하였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은 없으리라고 믿었다. 서방국가들에게 이제 더 이상 적은 없었다. 하지만 평화가 아직 저 멀리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나라들 사이의 그리고 사람들 간의 전쟁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으며, 대신에 이슬람이나 다른 이데올로기들과 싸웠다. 따라서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은 다른 전선(戰線)에서 평화의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의 기도 속에서 평화를 획득하는 것을 언제나 중심 주제로 삼아왔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성찬예배에서는 반복적으로 평화를 간청한다. 사제는 심지어 ‘**평화의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호천사인 평화의 천사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주에 계속]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모든 선을 베푸시는 하느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풍요로운 선물에 감사드리면서, 이기주의에 맞서서 더욱 가열차게 영적인 투쟁을 전개하도록 부름 받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II 고린토 6:2)

뜨겁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한 대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의 도움을 간청하면서, 또한 ‘금식의 경기장을 거뜬하게 달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는 형제들,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총대주교청에서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8년 성 대사순절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의 뜨거운 중보자
✠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소 식

대교구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귀국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께서는 지난 2월 1일~13일까지 콘스탄티노플의 세계총대주교청과 그리스를 방문하시고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께서는 한국의 모든 신자들에게 축복과 안부의 인사를 전해주셨고, 예로니모스 그리스 대주교와 많은 대주교들과 성직자들께서도 축복과 안부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는 그리스 아테네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에서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한국의 정교회를 소개하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주일학교 진급식

다음 주(3월 4일) 성찬예배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새 학년을 맞이하는 주일학교 진급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꼭 함께 참여하여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 건강하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날맞이 행사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오늘 성찬예배가 끝난 후 모든 신자들이 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리고, 다함께 윷놀이 등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신데즈모스(영어권 신자 포함), 장년회, 부인회, 슬라브어 사용 신자 단체들은 윷놀이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2018년도 봄 학기 예비신자 교리반이 3월 둘째 주(3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3월~6월까지 약 12주 동안 매주 주일 예배와 공동 식사 후에 정교회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합니다. 정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 중에 정교회 신앙의 기본 교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제2주간 예식

- 화·수·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2월 28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3월 2일(금) 오후 6시 > 제2성모 기립 찬양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